

## 現代와 哲學的 精神 ③

金午星

그리하여 哲學에 일으러서는 科學을 哲學的 原理를 拒否하기에 이르렀다. 어머니인 哲學을 그 子息인 科學에게 背反을 當한다. 『이오니아』의 自然哲學은 『아리스토텔레스』를 原點으로 하여 諸科學의 分離를 當하게 되었으며, 『文藝復興期』의 自然哲學은 『칸트』를 原點으로 해서 諸科學의 分離를 體驗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注意해야할 것은 哲學은 科學의 胎盤이며, 그러므로써 時代의 初創期에 잇서는 混合 乃至 統一되어 잇스면서도, 그 時代의 構成的 特性에 따라서는 自己가 主權을 잡게도 되며, 또 自己 子息에게 主權을 넘기고서 그 支配미테 呻吟하는 수도 잇는 것이다. 여기서 일은바 文化形態의 優位 問題가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希臘의 自然哲學은 그 自體에 孕胎하고 잇던 온갖 科學은 分産했슴에 不拘하고, 그 終末까지 依然히 自己가 支配權을 갖고 잇섯스나, 近代 初期의 自然哲學은 그 子息들인 온갖 科學을 分産하자말자, 그만 그 子息들에게 모든 主權을 빼앗기고, 그 뒤시중 하기에 自己의 生命을 마치게 된 것이다. 近代哲學의 大集成인 『칸트』철학이 『自然科學』의 基礎를 構築하는데 終始한 것으로 보아서 明瞭히 알 수 잇는 일이다. 아마도 그것은 希臘時代가 都市國家로서 그 國民의 運命이 그 國家의 運命에 依해서 左右되는 까닭에 原理的, 綜合的, 精神的 哲學이 主權을 가졌던 것이며 近代는 所謂 自由, 平等이란 個人主義 時代이므로서 原理的, 綜合的인 것보담 實利的인 實驗과 個別的인 分析의 科學的 精神이 主權을 가졌던 것이리라.

그런데 어머니와 아들 즉 哲學과 科學이 混合 또는 統一되어잇는 時代가 幸福하였다면 母子의 分裂, 즉 哲學과 科學이 分裂되어잇는 時代는 不幸한 것이다. 왜-그러냐 하면 前時代(哲學과 科學이 統一되어잇는시대)는 生産하며 創造하는 時代였스나, 後者는 즉 哲學과 科學이 分裂된 時代는 破産의 境에서 自己를 維持하려는 時代이므로써이다. 그러므로 科學을 內包하고 잇는 初創期の 哲學들은 모두 主張的이요 『創造的』 性格을 갖고잇슴에 反하여, 科

學과 分離된 뒤의 哲學들은 모두 解釋的이요 空虛한 概念 遊戲의 性格을 갖고있던 것이다.

× ×

이제 우리는 새秩序에의 尖頭에 서있다. 一切의 낡은 價値가 否定되려는 한편 새로운 價値가 創造되어 生産되지 안하면 안될 時代의 初創期에 서있다. 이제 우리들의 第一의 實務는 混沌의 事實 가운데서 『新秩序』의 論理를 차자내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單히 實證과 分析을 일삼는 科學的 精神에서 만은 不可能하고 오직 原理的 洞察力과 綜合的 精神인 哲學에 依해서만 可能한 것임은 勿論이다.

그런데 初創期의 哲學은 同時의 科學의 胎盤이 된다고 했다. 그리고 兩者의 分裂이 文化的 悲劇(그것은 文化 自體의 罪는 아니지만)을 나하 노흔다는 것도 알아왔다. 그러므로 새로운 哲學的 精神은 먼저 科學的 精神과 融合, 統一된 것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實驗的 精神과 分析的인 精神-이것은 近代科學이 끼쳐준 莫重한 精神的 遺産의 하나이라. 그것은 人類를 中世紀的인 『宗教的 獨斷』에서 救出한 功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프로 새로운 秩序를 創造하는데 잇서서도 그것 업시는 不可能할 것이므로써이다. 오직 問題는 이 實體的 어떠케 驅使하느냐 하는데 잇는 것이다. 科學은 對象에 對한 精神임에 反하여 哲學은 對象이 업는 즉 無對象을 對象으로 하는 精神이라고 한다. 온갖 科學이 各自의 特殊對象을 解明하는 것임에 反하여 哲學은 아무 特殊對象 업시 그 모든 對象을 超越해 잇는 對象의 本質, 또는 그것의 根源的인 것 原理的인 것을 把握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哲學이 對象을 超越키 위하여는 먼저 그 對象의 性質을 알지 안코는 不可能할 것이다. 그런데 對象을 아는 것은 實驗하고 分析하는 科學的 精神이다. 그러므로 哲學은 科學的 精神을 前提로 하고서만의 領域을 確保할 수 잇는 것이다. 自己 哲學이 對象을 超越해서 自己의 領域을 가지는 것은 哲學은 對象을 現象 그것으로서 滿足치 안코 그것을 根源에 돌아가 다시 吟味함으로써 그 『本質的인 것』을 把握키 위함이다. 그러므로 銳利한 哲學的 精神의 아페는 제아무리 權威를 가진 先知者의 論說도 그대로 受容되지 못한다. 科學的 精神으로 踏破하는 것과 가튼 宗教에 잇서서의 精神的 繼承과 가치 今日의 哲學이 반드시 『칸트』나 『헤겔』의 論理를 그대로 繼承함을 이름이 아니다. 哲學的 精神이 遺産으로서의 繼承하는 것은 先知者의 諸說의 內容이 아니고 哲學하는 精神 즉 思考하는 方法인 것이다. 歷史上의 偉大한 『哲學體係』의 思惟方法을 習得하지 안코는 내 自身의 思惟方法을 樹立할 수 업슴에서 맞는 遺産인 것이다. 그러므로 哲學的 精神은 自己의 思惟

論理를 獲得하자말자 先知者들에 향하여 論戰을 보내게 되며 그리하여 그들의 낡은價値를 否定하거나 또는 修正함으로서만 새로운 價値體係를 樹立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宗教人이 그 教祖를 詰難하는 것은 容恕치 못할 罪가 될 것이나 初步的인 哲學徒가 『칸트』나 『헤겔』을 詰離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될 것이 없는 것이다.